

토론·비전 들은 뒤 투표...신인 발굴 유리, 조직력 여전히 위력

새정치연합 경선 최대변수 선호투표제

지지·무당층 선거인단 500~800명 선정 박빙 구도엔 합종연횡으로 승부 바뀔수도

공론선거인단 선호투표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에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재보궐 선거 구에선 치열한 경선이 불가피, 선호투표제에 따라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호투표제란=여론조사 기법을 통해 선거인단이 구성된다. 선거인단은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부터 가장 후순위까지 기표한다. 1순위를 기준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소득표 후보자의 2순위 지지표를 나머지 후보자들의 득표수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반이 나올 때까지 하위 득표자들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 B, C, D 등 4명의 후보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선거인단은 선호하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적는다. 1순위표 개표결과 A~D의 순서대로 득표했다고 가정할 때, A후보가 1위를 했더라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최하위를 기록한 D후보를 탈락시키면서 D후보에게 1순위표를 던진 선거인단의 2순위표를 기준으로 A~C 후보의 표에 각각 더해 과반 후보를 선출한다. 그래도 과반 후보가 안 나오면 3등한 C후보를 탈락시키면서 C후보에게 1순위표를 던진 사람들의 2순위표를 기준으로 A~B후보의 표에 각각 합산해 과반 후보를 선정한다.

선거인단은 해당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와 무당층 중 500~800명을 선정한다. 선거인단은 투표 당일 후보자 간 모두 발언, 상호토론, 공동질문·응답, 마무리 발언 등 3시간가량의 토론회를 들은 뒤 투표한다.

◇합종연횡 변수=공론선거인단 선호투표제에서도 조직력이 승부를 가를 키 포인트다. 선거인단 구성이 전변화호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한 현실이다.

하지만 합종연횡이 변수다. 조직력이 강하다고 해도 압도적이지 않을 경우, 2~3위 후보자들의 합종연횡에 따라 '배제투표'가 현실화될 수 있다. 2~3위 후보자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된 지지자들에게 1위 후보를 2위로 기표하지 말 것을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선이 박빙의 구도일 경우,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 과반을 얻지 못한 1위 후보가 합종연횡의 강도에 따라 2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빙의 구도라도 후보들 간의 계산이 다를 수 있어 합종연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2순위 후보까지 지지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어려운데다 당일 토론회도 변수다.

토론회에서 제대로 선거인단에 경쟁력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1순위는 물론 2순위로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지역구에서는 특정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설이 제기되고 있다.

순천·곡성 지역 모 경선후보자는 "일단 선거인단에 포함된 지지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참여토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여기에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 가운데 친

7·30 재보선 광주전남 새정치 민주연합 후보 신청자

지역	후보	경력
광주 광산	기동민	전박원순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명진	전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김병현	경선대 9대 직선총장
	이근우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공동위원장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나주 화순	강백수	세무사
	박선원	전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송영오	전주 이태리대사
	신정호	전민선 3·4·7기 나주시장
	양시복	변호사
순천 곡성	이영호	전민주당 중앙위원
	이민원	전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인기	전민주당 최고위원
	홍기훈	전13·14대 국회의원
	고재경	전국회의원 보좌관
담양 함평 영광 영광 장성	구희승	전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동현	제9대 전남도의회 의원
	김영득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노관규	전민선 4·5기 순천시장
	서갑원	전17·18대 국회의원
담양 함평 영광 영광 장성	정표수	전공군 소장
	조순용	전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관	전남도의원(제4·5대)
	이개호	전전남도 행정부지사
	이석영	전함평군수
담양 함평 영광 영광 장성	정용대	독도대리잇기법국민운동본부
	(※가나다순)	

분이 있는 주자와 합종연횡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빌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가 실시한 7·30 재보선 공천심사에서 광주 광산을 공천 신청자들이 면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쏟아진 공격성 질문에 후보자들 땀 뻘뻘

새정치민주연합이 28~29일 실시한 7·30 재보선 공천심사 면접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특히 면접 첫날인 28일에는 '뒷발' 광주·전남 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이 실시돼 후보자 간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후보자들은 면접장을 나와 "질문이 예상보다 너무 강했다", "숨 쉴 틈을 주지 않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6명이 몰린 광주 광산에 공천을 신청한 4인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왜 하필 광주에서 나오느냐"는 공격성 질문이 나왔다. 중진으로서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택한 데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이에 천 전 장관이 "광주에서부터 야권

새정치연합 공천심사 면접

“왜 당선 쉬운 광주서 나오나”

“센 사람과 붙어보고 싶어”

팽팽한 긴장감속 문답 치열

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강한 수권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하자 심사위원들은 "전에도 국회에서 많이 활동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권정당을 만들겠느냐"고 되물었다고 천 전 장관이 전했다.

같은 지역에 신청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것만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의원 중에 '박원순표 사람'이 하나 있어

도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고 전했다. 기 전 부시장은 천 전 장관 출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비난을 감수하고 광주에서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지도부도 새 인물을 키울지, 안정성을 키울지 선택해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지역의 다른 후보자들은 적극적으로 출마 명분을 설명했다. 김명진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4년 역임했다. 이제 광주의 일꾼이 돼 유능한 정치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근우 새정치연합 광주시당위원장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독자세력화 과정에 합류했던 경력을 내세워 '변화'를 강조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대표'는 "관련 경험을 살려 경제민주화

를 재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에 실시된 수도권 등 후보자에 대한 면접에서도 후보자들이 '진땀'을 흘리게 하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서울 동작구에 공천을 신청한 금태섭 대변인은 "동작에서 계속 살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본선 상대로 거론되는 여당의 유력 정치인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문기에 변화를 상징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사람이 (선거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왜 김포에 출마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권이) 어려운 지역이어서 출마한다고 대답했다"며 "센 사람과 붙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김효석 前의원이 없네

광주·전남 공천 신청 안해 수도권 전략공천설 등 분분

7·30 재보선에서 광주 광산에 담양·함평·영광·장성으로 출마가 거론되던 김효석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아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마감한 7·30 재보선 후보자 공모 결과 김 전 의원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진들의 경우 공모에 참여하지 않아도 당에서 특별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전략공천 여부에 따라 중진들의 차출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역구를 골라서 경선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김 전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전략공천을 받을 수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 전 의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

재 서울 동작을, 경기도 김포와 수원 등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 전략공천 가능성은 있지만 특별한 지역에서 김 전 의원의 차출이 거론되지는 않고 있다. 한때 중앙대 교수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중앙대가 있는 동작을 출마설이 돌기는 했지만 현재는 잠잠한 상황이다. 수도권 출마가 막히면 출마가 가능한 지역은 광주 광산과 담양·함평·영광·장성이다. 하지만, 전략공천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김 전 의원이 호남에서 출마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선정, 경선 참여를 해야 한다. 출마 가능 지역에 있어도 광주 광산은 중진인 천정배 전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한 상태에서 김 전 의원이 선택하기 힘든 지역으로 분석된다. 결국, 김 전 의원은 수도권 전략공천을 받느냐 아니면 담양·함평·영광·장성에 출마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원 주변에서는 "김 전 의원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시원한 계곡과 힐링의 삼림욕!

월출산 기찬랜드·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개장!

월출산 기찬랜드

개장기간 2014. 07.11 ~ 08.31 (52일간)

이용시간 오전 8시 ~ 오후 7시

주요시설 자연형물장, 실내물놀이장, 휴게정자, 사위장 등

구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기찬랜드 입장료 (단체, 20인 이상)	개인	5,000원	3,000원	2,000원
	단체	3,000원	2,000원	1,000원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개장기간 2014. 07.11 ~ 08.31 (52일간)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7시

주요시설 자연형물장, 미끄럼틀, 사위장 등

이용요금 별도의 입장료는 없습니다.

구분	경차·소형차	중형	대형	
뱅뱅이골 기찬랜드 주차장 이용료	인원	15인승 이하	16~35인승	36인승 이상
	요금	5,000원	10,000원	20,000원

월출산 기찬랜드 (재)영암문화재단 061.471.8500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영암군청 산림축산과 061.470.2423